

# 尹 “3자 변제는 1965년 합의·대법원 판결 충족한 절충안”

### 국무회의 발언 20분 회담 평가 “과거에 발목 잡혀선 미래 잃어” “한일관계 개선 경제에 큰 도움”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 왔다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도 양자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처 공동선언’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연설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현대·LG·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규모 세계 3위의 시장”이라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연구 지원, R&D(연구개발)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 막바지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체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일에 서면 통보

### 2019년 종료 통보 철회 공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중요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통보를 일본에 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정상회담 직전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국회 교육위 ‘정순신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국가수사본부장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정문회의 결의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전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은 전날 오후 여당이 안전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오후 8시 안전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안전조정위 표결과 관련, “(8시 회의)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전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정위를 무력화한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 충돌

###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회의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전날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이날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고, 대신 운영위 여

당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실패,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그리고 역술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는 여당을 압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안 성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에 원만히 합의해서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첨단우리병원** |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